

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 농축산업 지원

1.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법안 개요

□ 농업기후변화 대책 등에 대규모 예산조치

- 미국 연방 의회 하원은 8월 12일 미국 민주당이 7월에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
- 이로써 본 법안은 양원에서 가결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16일 통과됨

[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예상 세입 및 세출 금액]

(단위 : 억 달러)

세입 예상액	7,370
법인세 최저세율 설정	2,220
처방전 약 가격 개정	2,650
국세청에 의한 세무집행	1,240
1%주식 환매 수수료 징수	740
손실제한 연장	520
세출 예상액	4,370
에너지 안전보장과 기후변동 대책	3,690
의료보험제도개혁법 연장	640
서부지역의 가뭄대책	40
부채삭감액 = 세입 예상액 - 세출 예상액	3,000

자료 : Senate Democrat(미 상원 민주당)

□ 본 법안은 4,370억 달러(589조 5,130억 원 : 1 달러 = 1,349원)¹⁾의
 세출 규모

○ 역대 최고액인 3,690억 미국 달러(497조 7,810억 원)의 에너지 안전
 보장과 기후변화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, 법인세 최저세율(15%)의
 설정 등으로 세입을 확보 예정

2. 농축산업 기후변화대책 예산조치

□ 에너지 안전보장과 기후변화 대책

○ 본 법안에 의한 세출에서는 에너지 안전보장과 기후변화 대책으로서
 410억 달러(55조 3,090억 원) 이상을 미국 농무부(USDA)에 배정
 - 이 중 180억 5,000만 달러(24조 3,495억 원)가 ‘보전 프로그램’ 에
 충당됨

[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농림수산 관련 예산]

(단위 : 억 달러)

미국 농무부 보전 프로그램	180.5
환경품질 인센티브 · 프로그램	84.5
지역보전 파트너십 · 프로그램	49.5
보전관리 책임 프로그램	32.5
농업보전지역권 프로그램	14.0
산림 보호 · 산불 대책	49.0
위험연료 삭감 프로젝트	18.0
식생관리 프로젝트	2.0
환경조사 효율성 향상	1.0
원시림 및 성숙산림의 조사 · 기록 · 보호	0.5
임업보호 프로그램	22.0
산림 소유자 경쟁력 보조금	5.5
바이오 연료 개발	181.0
합 계	410.5

자료 : Senate Democrat(미 상원 민주당)

1) 22년8월29일자 환율, 1\$ = 1,349원, 적용

□ 농업인의 자연자원 보전활동 지원

- 수질보전, 대기환경보전, 토양건전성 제고 등 농업업인의 자연자원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‘환경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(EQIP)’에는 84억5,000만 달러(11조 3,990억 원)가 조치돼 온실가스(GHG) 감축에 초점을 맞춘 노력을 지원

□ 축산분야 지원

- 축산 분야에서는 소의 장내 메탄가스 감축을 위한 사료관리·급이 방법 기술개발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짐

□ 기타 자연자원 보전사업 지원

- 이 밖에도 지역 당국자와 미국 농무부 ‘자연자원보전국(USDA/NRCS)’이 연계해 농장에서 자연자원 보전 과제에 대한 대응을 실증하는 ‘지역보전 파트너십 프로그램(RCPP)’
- 가축 방목 환경 개선, 작물 회복력 향상, 야생생물 서식지 개발 등 보전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하는 ‘보전관리 책임 프로그램(CSP)’ 등에 예산을 지원

3. 생산자단체 반응

-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농업단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음

□ 전국우유생산자연합회(NMPF) 멀한 회장

- “미국 농무부(USDA)의 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예산 조치로 낙농가들은 ‘2050년 환경 스튜어드십 목표’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(GHG) 배출량 삭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. 미국 낙농업계에 획기적인 예산조치에 감사한다.”

※ 2050년 환경 스튜어드십 목표

- 미국 낙농·유업계의 지속가능성 분야를 대표하는 미국 낙농 이노베이션 센터가 설정한 목표
- 2050년까지 GHG배출량 정미 제로, 물 사용량 최적화와 재사용, 극대화, 분뇨 및 영양분 이용 강화를 통한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□ 미국옥수수생산자협회(NCGA) 애플턴 공공정책담당 부회장

- “바이오에탄올 등 지속가능하고 저탄소 연료 인프라 정비와 토양건전성 개선에 관한 농장실천 지원 등 농가를 지원하는 조항을 법안에 담아준 것에 감사한다. 옥수수 생산자는 탄소 배출량을 삭감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전 보장 개선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.”

□ 전국농업인연합(NFU) 라류 회장

- “농가 수익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오연료 인프라 정비에 대한 예산조치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.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농가가 미래에 걸쳐 토지를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환영할 만한 일이다.”

참고자료 :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, 조사정보부(22.8.24.)